

농사철 앞두고 날벼락 맞은 해남군 왜?

'외국인 계절근로자' 82명 요청 법무부 거절...을 농사 깊은 시름 임금 문제·고용 방침 등 관리 부실 들어 한 명도 배정 못받아 당혹 전국 지자체 중 평창과 함께 탈락...농민들 "일손 없는데" 발동동

해남 지역 농민들이 농번기를 앞두고 날벼락 맞았다. 법무부 등이 해남군의 외국 노동자에 대한 부실한 인력 관리 문제를 삼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국 50개 지자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강원도 평창을 제외하면 해남이 유일하다.

농촌 고령화로 젊은 일손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도시에서 먼 지역은 웃돈을 올려줘도 일하는 것을 꺼려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해남군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를 비롯한 고용부·농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계절근로

배정심사위원회는 최근 전국 50개 지자체 중 해남군을 제외한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

계절근로자제는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로, 농촌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이 외국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의 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90일~5개월간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 농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올해 해남을 제외한 완도(95명), 고흥(50명), 장흥(50명), 나주(13명), 보성(8명) 등이 법무부 결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계절근로자'들을 데려와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해남의 경우 배정심사 과정에서 전년도 계절근로자 관리실태가 부실한 점을 들어 82명의 계절근로자 중 한 명도 배정을 받지 못했다.

해남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년도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인권센터 진정 문제와 애초 계획과 다른 업종에 인력을 활용한 점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예상했지만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남은 지난해 32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지만 올해는 고령화에 인력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2배 이상 많은 8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특용작물분야 비닐하우스 작업 14명 ▲과수분야 18명 ▲담배농사 10명 ▲벼농사 17명 ▲감자, 고구마 등 기타 농작물 재배 20명 등 수요조사까지 진

행해 신청했던 만큼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장, 농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매년 농사철로 접어드는 시기나 수확기, 안정적 일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절 근로자'를 받겨온 농민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 중국인 근로자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마저 구할 수 없게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일부 사업주가 애초 배정 방침과 달리, 다른 업종에 고용시킨 게 드러났지만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줄은 몰랐다"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전남 농어촌 일손 부족 ‘아우성’

인력소개소 발길 끊기지 오래 웃돈 줘도 사람 구하기 어려워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일손을 못 구해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남지역 농민들은 매년 농번기·수확기만 되면 발을 동동 구르기도 일수다. 고령화로 젊은 일손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쉽지 않아서다. 도시에서 먼 지역은 웃돈을 올려줘도 일하는 것을 꺼려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다. 최근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중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제한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게 지역 농·어민들 목소리다. 전남지역 인력소개소도 사람 발길이 끊기지 오래다.

11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 일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의 경우 매년 김 수확철(12~3월)만 되면 수확된 김을 건조시키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민들 고민이 깊다. 김영현(64) 완도군 소안면 마른김가공

협회장은 “매년 어렵지만 올해는 더하다”면서 “마을 노인들까지 일을 거들어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다시마를 말리는 5~7월에는 웃돈을 줘도 젊은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2017년 '베트남 계절근로자 유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 활용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나주·보성·고흥·장흥 등도 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인력을 확보, 농민들이 필요하는 시기에 제때 투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나주의 경우 지난해 배정받은 7명의 외

국인 계절근로자를 배 따기와 봉지 씌우기, 가지, 고추, 고구마 수확 등의 작업에 투입했고 고흥도 지난해 바쁜 김 수확철에 28명을 투입했다.

무안지역 한 농가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기피하면서 매년 농번기철 일손 구하는 게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영광에서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는 김모(58)씨도 “11일 하루 동안 인력소개소를 찾은 사람이 고작 3명”이라며 “벼농사, 밭농사부터 특수작물인 수박 등을 키우는 농가마저 일할 사람이 없어 아예 ‘폐농’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young@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업중 성적 표현 교사 정서적 학대 보기 어려워...무죄 여학생 팔뚝 쓰다듬고 팔뚝 잡은 교사는 벌금 700만원

고교 수업 중 성적 표현을 사용,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의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이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5월경 광주 모 고교에서 수업 중 성적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행위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행위가 피해학생들에 대한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가학적 성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발언 수위도 피해학생들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반복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016년 5월~6월경 학교 체육관에서 여학생 팔뚝을 쓰다듬고 팔뚝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51)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수십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생들 생활을 지도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초등생에 욕 하고 발로 찬 교사 정서적 학대...벌금형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욕을 하고 혼계 하면서 발로 차는 등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이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심 식사 후 휴식 시간에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학생을 향해 “여기가 무슨 시장이냐. XX년”이라고 욕설하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껌을 씹는 학생에게 혼계하며 발로 엉덩이를 차고 머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학생에게 급식실 위치를 알려주려는데 “개랑 놀지 마라. 나쁜 애”라고 말한 것도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뇌물수수 등 혐의 계림8구역 재개발 조합장 법정 구속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8월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 운영비 2200만원을 횡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수입

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에는 정비업체 관계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용역 대금 2억1000여만원을 신속하게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용역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집 나서려다 혁!...대문 앞에서 소변 보던 남성과 실랑이 끝 폭행

○...집 밖을 나서려던 40대가 자신의 집 대문에 소변을 누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행.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10일 밤 10시 20분경 광주 시 광산구 산정동 자신의 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던 찰나에 술에 만취한 B(39)씨가 바지지퍼를 내리고 대문에 소변

을 보고 있었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외출하려고 집 밖을 나서려는데 B씨가 대문에 소변을 보고 있어 그만두라고 했는데 소변을 멈추지 않았다”며 “B씨가 되레 화를 내길래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역살을 잡고 경감을 발로 찼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헌혈운동 앞장서는 에덴병원

신종코로나 사태로 광주지역 헌혈자가 지난 해보다 20~30% 가량 감소하자,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원장 허정) 직원들이 헌혈운동을 벌였다. /나명주 기자 mjna@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아파트 행암동 제일풍경채 16층 94㎡ 조망 일조권 최고 3억3700
- 카페 등 적합 화순 도곡면 효산리 땅 940㎡ 집 92㎡ 4억6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6층 정남향 리모델링 원로 즉시입주 1억1800
- 북구 임동 소방도점 준주거 298㎡ 원룸 등 적합 4억6500
- 서구 양동 광주전면 부근 상업지 땅 347㎡ 다세대 원룸 등 적합 5억5600
- 담양 월산동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 가능 1억5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은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월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 최고 평당 23만원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덕간도로 4323㎡ 유동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강터)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외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땅 403㎡ 가게 197㎡ 커피숍·편의점 조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목포시 대영동 1종주거지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무안군 삼향읍(전남도청 건너편) 신세계프라자 1층 67㎡ 자영업 적합 4억4천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별장 대물교환 가능 은행 3억선상 임대 매도는 6~7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도 고수의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2월 28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강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상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안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통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중 장 222-8171	
남구	·남 부 675-5530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화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우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